

## 농진청, 농촌 어르신 ‘행복 2막’ 프로젝트 뜨거운 호응

# 인지하고, 마음 열고, 귀 기울이니 되살아나는 ‘이웃精’

### ‘노인 공감 높이기 프로그램’

경기도 5개 마을 54명 대상 진행  
공감능력·대인관계 점수 모두 ↑  
만족도 높아 10명 중 9명 ‘재참여’

최근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에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진청이 농촌 노인의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결과 대인관계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의 3요소인 인지, 정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갈등 해소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으로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인지’에 관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공감의 기



농진청이 개발한 노인 공감력 높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농진청

초를 다질 수 있는 ‘마음 열기’, ‘자기 이해하기’, ‘상대방 이해하기’ 3개 주제로 이루어졌다.

관련 체험은 ▲만다라 색칠과 소감 나

누기 ▲감정 종류 이해하기 ▲표정 그림과 감정 단어 잇기 ▲감정 표현 알아맞히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정서’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

이나 감정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하기’, ‘귀 기울이기’ 2개 주제로 구성했다.

관련 체험으로는 ▲얼굴 표정 표현하기 ▲상황 그림 전달하기 ▲맞장구 연습하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정서적으로 공유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관계 맺기’ 2개 주제다.

관련 체험은 ▲정중하게 요청하기 ▲상황에 맞는 표정 짓기 ▲장점 찾고 칭찬하기 ▲공동화 그리기 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농진청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의 5개 마을(여주, 연천, 이천, 평택, 포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54명에게 주 2회 2시간씩 4주 간 적용한 결과, 공감 능력 점수(3.72점→4.29점)와 대인관계 점수

(3.78점→4.26점)가 모두 향상됐다. 또한, 매우 높은 만족도(2.93점/3점 만점)를 보여 참가자 10명 중 9명은 다음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노인은 “농촌지역이 삭막해지면서 이웃과의 교류도 예전과 같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 조금은 더 친해진 것 같다”며 프로그램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농진청은 이 내용을 담은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노인상담연구소 등에 배부했다. 아울러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최정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는 “이 프로그램으로 농촌 노인이 이웃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마권 구매상한제 유명무실... 마사회 방관”

### 박완주 더민주 의원

마권 판매 70%가 자율발매기  
직접적 통제 어려워 위반 수월

한국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 지적된 건수는 총 3만9940건으로 본장 1만8835건, 장외발매소 2만 1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자율발매기의 경우

발매원이 대면해 판매하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용자의 대다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2756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어 모바일 1조6354억원, 유인발매기 7965억원, 계좌발매 939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 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사감위가 아닌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

박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해수·퇴적물 미량금속 국제숙련도 ‘최고’

### 해양환경공단 시험서 전항목 ‘만족’

해양환경공단(KOEM)은 국제원자력기구(IAEA-NAEL)와 WEPAL(QUASIMEME)에서 주관하는 해수 및 퇴적물 미량금속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전항목에서 최고등급인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해수 및 퇴적물 분야 시험·분석 능력을 보유한 기관임을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IAEA-NAEL과 WEPAL(QUASIMEME)에서 진행되는 국제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약 100여 개 이상의 분석기관이 참여해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IAEA-NAEL은 해저퇴적물 부분 구리의 11항목, WEPAL(QUASIMEME)은 해수 부분 수은의 9종과 해저퇴적물 부분 구리의 12종의 총 2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공단은 전 항목에서 ‘만



족’ 판정으로 인증을 받았다.

특히, IAEA-NAEL에서 수행한 해저 퇴적물 미량금속은 올해 처음으로 인증 받았으며, WEPAL(QUASIMEME)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해수 미량금속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전 항목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해저퇴적물 부분은 2012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공단에서 생산한 해수 및 퇴적물 미량금속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편, 미량금속 분석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 ‘명품 전통주’ 대통령상 주인공은?

aT ‘2018 우리술 품평회’  
품평회 접수 8일까지 진행  
5개 부류 3점씩 15점 선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수 전통주의 선별·육성 및 품질향상과 경쟁력 축진을 위해 ‘2018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최고권위의 국가

공인 주류 품평회로, 우수한 전통주에 대해 탁주(살균탁주, 생탁주), 약·청주, 증류주(일반증류주, 증류식소주), 과실주, 기타주류 등 5개 부류에 각 3점씩 총 15점을 선발한다.

출품작들은 국산농산물 사용실적과 우리술 품질인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서류심사와 우리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관능평가 결과를 합산해 각 부문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aT 사장상 등의 수상작이 결정된다.

대통령상은 5개 주종별 1위 제품을 대상으로 제조시설, 품질관리 등에 대한 현장평가와 관능평가를 실시해 최고 득점 1점에 대해 수여된다.

품평회 접수는 ‘우리술 품평회 홈페이지(www.우리술품평회.kr)’를 통해 이달 8일까지 진행된다.

aT 관계자는 “올해도 우수한 우리 전통주 업체의 많은 참여를 통해 국가 공인 최고 권위 주류품평회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중소벤처 2곳 중 1곳 ‘중소 대표기관은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의 55% 가량은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2019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글로벌CEO클럽 등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글로벌CEO클럽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회원사 7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밝혔다.

우선 응답자의 54.5%는 중진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중소기업 대표기관(대표성)을 꼽았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친절성)(20.0%) ▲중소벤처기업 문제 해결사(전문성)(13.0%) ▲최초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역사성)(10.1%)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진공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진공 40주년 준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전, 전략수립, CI개편, 성공사례집 발간, 40년사 편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진공의 장점은 ▲자금, 수출, 인력, 창업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 분야 기능 제공(67.4%) ▲최초의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14.8%) ▲현장실사, 기업진단 등 중소기업 전문 지원인력 보유(10.9%)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

## 코트라, 아프리카 블루오션 수단 공략

### 韓·수단 비즈니스협력 포럼 상담회

코트라(KOTRA)가 아프리카 대표 블루오션인 수단 시장 공략에 나선다.

KOTRA는 플랜트산업협회와 함께 수단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오는 3일(현지시간) 수단 카르툼에서 ‘한·수단 비즈니스협력 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14개 기업과 KOTRA, 플랜트산업협회를 비롯해 산업부, 주수단대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함께하고 수단측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수단 상의 등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GIAD(수단 최대 공기업) 등 기업 대표 160여명이 참가해 우리사절단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수단은 인구 3900만명, GDP 1250억 달러로 아프리카 내 3위, 세계 16위 국토면적, 풍부한 광물과 수자원 등을 자랑하는 아프리카 대표 국가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국가다.

지리적으로도 이집트 남부의 중동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어 중동을 거점으로 아프리카나 반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KOTRA는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단 진출 호조 및 매력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먼저 20년간 지속된 미국발 경

제제재 해제에 이어 조만간 테러지원국 해제가 기대된다.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금융, 무역투자 거래 활성화에 따른 특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석유생산 재개 가능성이다. 지난 2010년까지 석유는 수단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1년 남수단 분리 독립으로 보유 유전의 4분의3을 상실해 지금까지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년 넘게 지속된 남수단 내전 종식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수단 내 석유 생산, 수단과 국경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수단 석유 생산이 재개되면 수단은 송유관 사용료 및 석유 확보, 보상금 회수 등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많은 수단 기업인들은 과거 제조업분야 최대 투자기업으로 자신들의 산업화를 이끌어줬던 대우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승희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은 “블랙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젊은 대륙 아프리카가 자원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수단은 20년간 제재가 이어지면서 외국기업 진출이 미흡, 소비자들이 다양한 외국제품을 접할 기회가 제한받았다”고 강조했다.

/양성문 기자 ysw@